라꾸의 변천과 발전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changing and development of Raku

유 미 자

홍익대학교 조형대학 전임강사

이 논문은 1999학년도 홍익대학교 학술연구조성비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報告論文 Research Report ● Received : Jul. 21. 1999 ; Accepted : Sep. 21. 1999

목차

Ⅰ. 서론
1.1 라꾸기법의 발생
1.2 종교적, 역사적 배경

Ⅱ. 라꾸의 변천과 발전과정
2.1 일본
2.2 미국
2.3 유럽
2.4 한국

Ⅲ. 결론

참고문헌

요약

라꾸란 이름의 도자기법은 일본어로서 일본인에 의해 시작된 것으로 널리 알려지고 있지만, 실지로는 1525년에 일본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한국인 조지로에 의해 시작되었음이 영국인 Bernard Leach가 쓴 "도예가의 책"에 의하여 세계에 알려졌다.

그 후 라꾸기법은 유럽과 미국에서 꾸준히 발전해서 지금은 숙련된 기법으로 많은변화를 가져왔다. 외국에 비교해서 우리나라에서 라꾸가 발전하지 못한 이유를 조사하고, 발전방향을 모색하여 실천하는 것이 앞으로의 도예가가 할 일이다.

우리 선조들이 발명한 도자기법을 확실히 알고 역사적 배경과 변화되어온 과정 그리고 오늘의 라꾸도자기의 발전된 모습에 대해 검토, 분석하고자 한다.

Abstract

Although the ceramic technique called Raku has been known to be invented by Japaness "The Book of Ceramic Artists" written by Bernard Leach indicates that it is in fact originated by Korean named Cho, Ji-ro who had settled in Japan since 1525.

Raku has been continously developed in Europe and America. It now brings out a great deal of variation through skillful techniques. What the ceramists are supposed to is to seek the reasons why the Raku could not developed in Korea compared to the foreign countries, also they need to find out the direction of its development and work on it continously. This study is to examine and analyge the process of development of Raku ceramic technique along with historical background.

Ⅰ.서론

라꾸(Raku)는 예술의 역사상 가장 자연적이고 진실한 보기라고 할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라꾸는 문헌속에 특수한 일본의 도자기법으로 세계에 널리 알려져 있으며 오늘날에 와서는 훌륭한 라꾸작품을 세계의 유명한 도자기 박물관이나 수집장소에서 쉽게 볼 수 있다. 특히 일본인들이 좌완(chawan)이라고 부르고 찻잔으로 사용되고 있는 우리의 사발은 차를 마시는 의식(Tea ceremony)에 사용됨으로서 역사적, 종교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고, 16세기 말에는 일본에서 라꾸 찻잔의 절정기를 이루었다.

이 고도의 자연스럽고 단순한 라꾸의 아름다움은 300년 후 일본이 서양으로 문을 열었을 때 많은 관심과 호기심으로 이것을 받아들인 그들은 라꾸를 더욱 발전시켜 도자예술의 한 부분을 차지하게 하였다.

1981년에는 라꾸가 유럽인에게도 많은 감동과 흥미를 주었고, 이것을 계기로 지금은 눈부신 발전을 가져와 라꾸 특유의 공모전이며 전시회 등 도자예술에 큰 기여를 하게 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오늘날까지의 라꾸예술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과 라꾸와 우리민족과의 관계 그리고 지금까지 라꾸가 변화되고 발전된 과정을 분석, 검토하고 이것을 토대로하여 우리의 도자역사를 확실히 인식하여 라꾸가 도자예술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다.

1.1 라꾸기법의 발생

라꾸야기(Rakujaki = Rakuware ,樂燒), 말 그대로 즐길락, 불사를소 즉 유쾌, 쾌적 그리고 기쁨등을 가지고 있는 일본어이며[1] 도자기를 약 900℃정도로 소성한 수 뜨거운 상태에서 가마문을 열고 집개로 기물을 꺼낸후 톱밥이나 낙엽등을 넣어 환원시키거나, 온도를 급강하시킴으로서 여러 가지 재미있는 효과를 내는 형식에 그리 얽매이지 않는 자유로운 도자기 소성법이다.

처음 라꾸를 시도한 당시에는 크게 두가지로 구분되고 있다. 첫째는 낮은 온도(800-900℃)에서 산화철이 많이 함유된 적색점토를 사용하여 납유약으로 시유해서 붉은라꾸라고 하였고, 두 번째는 검은라꾸라고 하며 천목유로시유하여 1200℃에서 소성한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자유롭게 알맞는 재료를 선택하고 방법을 개선하여 개성이 독특한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자유를 추구하는 인간의 열망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현대미술운동중 하나의 두드러진 경향은 "파형(deformation)에 대한 추구"를 들 수 있는데, 이것을 대비의 면에서 해석하면 비대칭과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이 불규칙의 원리 즉, 형태를 깨트림은 새로운 것이 아니지만 근래에 와서는 이것이 의식적으로 주장되어왔다. "자유로움" 아름다움이라면 필연적으로 파형의 미에 가깝다. 오래전(400년 전)부터 의식적으로 일본의 다인들은 이러한 불규칙성의 아름다움을 의식적으로 감상했으며 이를 창작의 원리로 만들었다.[2] 최근에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자유로운 형태'를 추구하는 도공들이 의도적으로 비대칭과 변형을 시도하고 있는데 이미 라꾸다기(그 당시 손으로 만든 결이 거친 도기의 일종)는 조선에서 일본으로 건너간 조사랑이라는 도공에 의해 3~4세기 전에 시작되었다고 한다.[3]

또한, 오랫동안 일본에서 살았고 일본에서 도예를 배운 영국 도예가 Bernard Leach가 1940년에 유럽으로 돌아온 후 저술한 도예가의 책(The Book of ceramic Artists)에서는 1525년에 교토(Kyoto)에 정착해서 살고 있던 한국인 죠지로(Chojiro)에 의해 처음으로 라꾸를 시도했다고 분명하게 기록되어 있고 지금은 그의 후손 (15대)들이 교토(Kyoto)에서 라꾸작업을 계속하고 있다고 한다.[4]

그러나 그당시 왜 한국인 조지로(Choji-ro)가 그때 일본에 정착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명이나 언급이 없다.

1994년에 영국의 Tim Andrews가 저술한 Raku책에 의하면 한국인 조지로(Chojiro)가 그 당시 일본의 교토(Kyoto)로 이민간 도예가로 되어 있으며 조선도자기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기록되어있다.[5]

그 밖에도 원광대학교 정동훈 교수에 의하면 조사랑은(임진왜란 전후) 일본으로 납치된 조선도공의 후손으로 조선시대 등요의 소성기법을 일본에서 재현하던 중 우연히 락소기법(라꾸기법)을 창시하게 되었을것으로 추측하고 있다.[6]

위의 글을 모두 종합해보면 라꾸는 분명히 한국인에 의하여 시도되었음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고 있다.

1.2 종교적, 역사적 배경

선(Zen) 불교는 불교에서 유래되었으며 522(n.chr.)년에 처음으로 일본에 들어왔다. 그 당시 불교는 이미 1000년이 되는 배경을 가진 고도성장을 한 종교였다. 선불교가 일본에 전적으로 소개되고 정리된 것은 일본의 슬기로운 두 사람 에샤이(.Eisai, 1141~1215)와 도젠(Dogen, 1200~1253)에 의해서이다.[7]

중국에서 선불교(Zen 또는Cha'n-Buddhism)는 이미 성시대(Sung-dynasty 960~1779, n.chr)부터 큰 영향을 준 불교였고, 이 시기에 중국의 문화를 널리 전파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뿐만 아니라 종교적인 사명이외에 광범위하게는 예술에서

1) 정동훈, 가마릿기와 번조기법, 미진사, 1992, p.117

2) 야나기무네요시, 쿠마쿠라이사오 엮음, 김순희 옮김, 다도와 일본의 미, 소화 1995, p.158

3) 유종열, 공예가의 길, 미진사 1992, p.117

4) Bernard Leach, Das Toerpferbuch, Hoernermann, Bonn 1980, p.51

5) Tim Andrews, Raku, Black/Chilton, London 1994, p.9

6) 정동훈, 월간 공예, 1989/8, p.85

7) C.Tyler/R.Hirsch, Modernes Raku, Hoernemann 1979, p.11

도 그들에게 한 부분을 차지했던 다도(Tea ceremony) 등에서 나타났다.

'선'(禪)이라는 글자의 실제 의미는 '명상'이다. 그러므로 선을 배우고 다도를 배운다는 것은 마찬가지의미를 갖게 되었다. 말하자면 다례는 선의 현시 또는 대의 세계에서 선을 배우는 한가지 방법이었다.[8]

선불교가 필요했던 것은 말보다 단순하고 직접적인, 상징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매일의 대화였으며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일본의 선불교와 다도는 잘 조화되었고 성행할 수 있었다.

에샤이(Esiai)가 선불교를 일본으로 들여올 때 차는 물론, 차의 재배도 시작했다.

처음에는 차가 건강에 좋은 이유와 교토(Kyoto)왕실에서는 유행등의 이유로 마셨으나 선불교를 통한 다도는 새로운 의미를 주었고 차도구로서는 가장 자연스러운 형태의 라꾸찻잔이 높이 평가되었다.

차 맛은 항상 같아도 찻잔에 따라 분위기와 맛이 다르다는 말이 있듯이 의미적으로는 정신적 인지와 단순하고 자연스러운 형태로 만들어진 물질 사이의 대화라고 볼 수 있다.

라꾸 도예가들은 그 당시 단지 다도만을 위한 찻잔을 만들었음은 물론이고 형태에 있어서도 많은 변화가 있었으며 드디어 17세기에는 라꾸 찻잔의 다도가 승리의 절정에 이르렀다.

1587년경 교토(Kyoto)에서는 다도(Tea-Zeremonie)를 10日간이나 보여주는 의식이 있어서 많은 관중들의 관심과 주목을 끌었는데 그 중 라꾸를 처음 시작한 한국인 조지로(Chojiro)도예 가족에게도 라꾸 찻잔을 만들어 달라는 요청이 있었다고 한다. 한국에서 이주해온 관계로 그리 오래된 도예 가족은 아니었지만 훌륭하게 만들어진 찻잔은 일본의 도예가족이 만든 것과는 많은 차이를 보였으며 조지로(Chojiro)는 정말 한국에서 잘 알려진 도자기 가문의 후손이라는 점이 그 당시에도 잘 알려져 있었다고 한다.[9]

II. 라꾸의 변천과 발전과정

흥미를 야기시키고 모험적이며 긴장감을 주는 특성을 지닌 라꾸는 오랜 시일이 지나는 동안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본래의 철학적 배경과는 무관하게 각 나라마다 그 문화의 영향을 받아 독특한 기법과 방법으로 표현되어 현대 도자예술에 큰 기여를 하고 있다.

2.1 일본

대표적인 것으로 '다기'에 나타난 '불규칙의 미'는 일본 문화전반에 이미 나타났다. 일본인들은 분명 우리가 별로 깊이 생각하지 않았던 것을 이미 오래전부터 수용하고 소화시켜 발전시켜왔다. 형태에 비틀어짐이 있거나 표면이 거칠거나, 유약에 얼룩이 나와있는 형태는 완전하지 않은 상태인 것이다. 그러나 다인들은 거기에서 무한한 아름다움을 보았던 것이다.

오랜 시일이 지난 지금 일본에서는 다도의 의식에 사용되었던 라꾸 찻잔은 그 당시의 기쁨의 표현과 명성을 가미시키는 모습에서 멀어졌다.

전쟁을 치룬 일본의 사회조직에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고 미래의 라꾸도예가는 무명인이 아닌 대학에서 도예를 배운 자신감을 지닌 예술가이다.

교토(Kyoto)에 있는 라꾸대공방에서는 물레로 성형한 후 의식적으로 비대칭의 형을 만들고, 분업화가 되어있으며 이것에 대해 말하기를 꺼려하고 있는 입장이다. 대부분의 라꾸도자기는 찻잔이나 꽃꽂이도구, 식탁위에 사용되는 그릇등으로 제한되어 사용되고 있다.

최근에는 믿지못할 정도로 일본의 영향을 받아 라꾸에 흥미를 얻은 미국의 도예가들이 현대미술의 개성을 표현하는데 라꾸기법을 사용해서 다시 원활하게 했으며, 이것으로 인해 일본의 도예가들은 라꾸도자기를 다시 의식하게 되었다. 대표적인 도예가로 유럽에서 활발한 활동을 하고 있는 작가는 Haguiko이다.

지금 일본의 많은 도예가들은 그들의 왕성한 에너지를 라꾸도자기에 투자하고 있으며 또 하나의 수준높은 라꾸의 르네상스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2.2 미국

현대도자의 창시자이며 동서양의 중개자였던 영국인 Bernard Leach가 일본에서 쌓아온 라꾸기법은 물론, 도자에 대한 오랜 경험을 그의 책을 통해 발표했고 이로 인해 미국과 유럽에 알려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Bernard Leach 자신 스스로는 물론, 처음에 미국도예가들은 라꾸에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곧, 전통적으로 얽매이지 않은 미국도예가들에게는 이 책이 큰 자극이 되어 60년대에는 미국에서 라꾸의 르네상스를 이룰만큼 성행되었다.

특징적인 것은 종교의식(불교의 다도의식)에서 탈피하여 자유롭고 예술적인 면만을 추구했고 발전시켰다. 즉, 비대칭의 조형원리와 우연의 철학이 불과 혼합하여 다시 자연스럽게 표현되었다.

미국에서 감명을 받은 도예가 Warren Gilbertson은 일본으로 건너가 라꾸도예가 에게서 라꾸기법을 습득했고(1938~39)고국으로 돌아온 후 최초로 라꾸전시를 했는데 아주 성공적이었고 이에 대한 반응도 열광적이었다.

미국인들은 책에서 얻은 라꾸지식을 개혁하기에 이르렀으며 그 대표로 Paul Soldner는 미국에서 라꾸를 시도한 도예가로서 1960년 미국의 California에 있는 Scripps College에서 학생들과 라꾸실험을 했으며, 특수한 것은 소

8) 유종열 지금, 베르나드 리치 엮음, 이대일 옮김, 공예가의 길, 미진사 1992, p144

9) C.Tyler/R.Hirsch, Modekner Raku, Hoernemann 1979, p.14

성후 다시 낙엽이나 톱밥으로 환원을 시도함으로써 새로운 효과를 얻었고 라꾸를 더욱 발전시켰다.[10]

1950년 경에는 미국의 "추상적 표현주의(Abstract Expressionism)"에 평행으로 도자조형이 시도되었으며 라꾸기법이 사용되어 도자 예술에 기여했다.

근대에 와서 미국에서의 라꾸에 대한 열기는 조금은 식었지만 아직도 진지하게 연구, 실험되고 있으며 오브제, 도자예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라꾸 Workshop, 쎄미나, Sommer School, 라꾸전시회, 라꾸공모전 등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 미국과 유럽에서는 free form이 주장되어 일부러 형태를 구부리거나 불균등한 아름다움을 시도하고 있으며 일종의 유행으로까지 번져있다.

2.3 유럽

처음 라꾸가 미국에 들어왔을때와 마찬가지로 유럽도예가들도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으나 점차 많은 도예가들의 호기심을 유발시켰고 라꾸에 대한 모든 것을 자세히알려고 했다.

유럽에서도 역시 Bernard Leach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처음에는 집단작업으로 생각했고 이것을 그 목적보다 더 중요시하기도 했는데 지금은 라꾸작업이 활성화되어 라꾸공모전등이 성행하고 있고 특히 도예오브제 방면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1981년에는 보스톤에서 온 David Davison이 Kecskeme't에서 라꾸기법을 시도했으며 이로 인해 유럽도예가들의 큰 관심을 끌었다.[11]

1960년에는 Paul Soldner의 실험적 라꾸와 Peter Voulkos, 일본의 Kanashinga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었다.

지금까지 16년에 걸친 라꾸에 대한 노력과 열정은 라꾸부문에 더욱 많은발전을 가져 왔는데 유럽에서 발전되고 성행하는 중요한 라꾸기법들을 조사해보면 라꾸의 발전해온 과 정과 변화된 모습을 볼수있다.[12]

① 저화도 유약라꾸- 특히 프리트, 러스터(Luester)등 알카리나 알카리토류를 함유하는 붕 산유약이 적당하며 Luester사용시는 500~900℃에서 소성시 가장 화려한 색을 낼 수 있으므로 환원시 오랫동안 지속시켜 주는 것이 좋다.

② 화장토 (영어로는 Slip, 불어로는Engobe)

색 화장토를 사용하여 산화, 환원시키면 생동감 있는 색 효과를 볼 수 있고 온도의 급강하 로 인해서 기불표면에는 자연스러움이 더욱 가미되어 아름다움을 고조시킨다.

화장토를 사용시 장점은 금속색을 산화소성 시킴으로써 원하는 색을 그대로 나타낼수 있다.

③ 소다라꾸(Soda Raku)

라꾸(Raku)기법과 소금유법(Salt Glaze)을 병용한 것으로 미국에서 처음으로 시도되어 80~90년대에는 유럽에서 소다라꾸의 절정기를 이루었으며 도예가나 수집가 그리고 도예에 관심이 있는 이에게 많은 흥미를 주고 있다. 소금유법은 13-14세기경 독일의 라인지방(Rhein-Siegburg)에서 처음 시작되었다고 알려지고 있다(12세기경이라고 쓰여진 책자도 있음-W.lehnheuser). 이방법은 소성시 유약이 녹는 적당한 온도에 달하면 마지막 단계에서 소금을 투입시켜 도자기 표면에 소금유(Natrium Silicate-aluminium-glaze)를 만드는 것으로 재료로서의 소금은 값이 싸고 쉽게 녹는다는 (약 800℃)장점도 있으나 한편으로는 소금을 사용시 생기는 HCl(염소가스)의 생성으로 60년대에 미국에서는 환경오염등의 이유로 소금대신 다른 물질을 생각한 결과(Unique Object) 소다라꾸를 생각하게 되었으며 80년대에는 유럽에서 소다라꾸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소다라꾸에서 특이한 점은 기존의 라꾸가 저화도(800-900℃)소성으로 인해서 쉽게 파손되는 단점을 온도를 높힘으로써(1100℃)고려한 점이다.

여기에도 또한, 금속염 사용시 부주의로 인한 환경오염의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한 양만을 사용하고 남용이 없어야 될 것이다.

특히, 소다라꾸는 2차 환원을 통해서 금속염의 색을 아름답고 생동감있게 나타나게한다.

④테라시질라타라꾸

오스트리아의 Roland Summer가 최근에 시도한 기법으로 테라시질라타화장토를 바른 후 1차 소성을 하고 다시 한 번 이 과정을 반복후, 또다시 테라시질라타 화장토를 바르고 라꾸가마에서 소성한다. 물속에 넣어 급냉시키면 계란 껍질같은 층이 벌겨지면서 윤이나도록 문지르면 뜻밖의 효과들이 나타난다. 원한다면 마지막 처리로 부드러운 왁스로 표면을 깨끗이 닦아준다.

⑤ 시유후 기물면에 선을 그어주는 방법

라꾸기법에서 기물이 쉽게 깨지는 대부분의 이유중 하나는 급냉에 의한것이며 이것을 사전에 막기위한 방법이기도 한다

시유한 기물면에 원하는 선을 자연스럽게 그려주어 소성후 급냉시의 도자기 표면에 섬세한 금(Craqell'e)이 가는 것을 유도하는 방법으로 시유후 원하는 곳해 선을 그어 효과를 돕는다(독일의 Martin Mindermann이 시도).

예를 들면 선을 그은 틈에 다른 유약을 발라주면 소성후 그선은 더욱 분명해져서 원하는 효과를 낼 수도 있다.

10) C.Tyler/R.Hirsch, Moedernes Raku, Hoernemann 1979, p.29
11) Neue Keramik, Verlag Neue Keramik Gmbh, 95/12, p.791
12) 유미자,월간도예,1998/8,p.26-27

⑥ Lithium라꾸

리튬 키보네이트(Lithium Carbonate)에 산화금속물을 섞어 기물에 시유한 후 소성한다. 유약의 두꺼운 정도와 소성온도에 따라 색과 특성이 달라진다.

일반적으로 카보네이트는 낮은 온도에서 녹으므로 기화되어 날라가서 기물표면에 붙어 유약효과를 내도록 사용되는데 이 방법은 잘 통제할 수 없을뿐 아니라 가마벽, 상판, 지주 등에도 영향을 주므로 이것을 개선한 것이다. 리튬 카보네이트는 낮은 온도에서 녹으며 수성이므로 여러가지 산화금속물을 섞어 기물에 직접 시유한다.

소성온도는 900~1000℃이며 라꾸처림 2차환원시키고 냉각과정에서 다시 산화시키면 재미있는 효과를 볼 수 있다.

한국인에 의해 라꾸기법이 처음으로 시도는 되었지만 이렇게 다양한 기법으로 라꾸는 유럽에서 발전되었으며 대학교육과정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특히 도자조형예술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좋은 예로서 독일의 대학(Kassel대학 도예과)에서는 금속을 녹이는 전기가마(Tiegel Ofen)를 라꾸가마로 개조해서 교과과정의 한 부분이 되어 실험도예의 중요한 부문을 차지하고 있으며 라꾸발전에 큰 몫을 하고 있다.

2.4 한국

자세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고 있지만 라꾸를 기피하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이것은 한국인 조지로에 의해서 라꾸가 처음으로 시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라꾸발전이 미비한 하나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다.

그 이유를 분석해보면 고려, 조선시대에 찬란했던 청, 백자의 도자사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딘지 모르게 어울리지 않는 측면이 있다고도 볼 수 있다.

일본에서 라꾸가 불규칙의 미를 지향해온데 반해 한국의 전통도예는 완벽의 미를 추구해 왔다고 할 수 있다.

똑같은 것을 수천번씩 재현함으로써 완벽한 기술을 보여왔으며 유약의 색상, 선의 흐름, 형태, 크기등과의 비례, 용도등에서도 완벽한것만을 취하고 조금이라도 흠이 있는 것은 깨어버리는 것을 미덕으로 삼아온 것이다. 이런 점들이 바로 우리나라의 라꾸를 발전시키지 못하는 요인이라고도 볼 수 있다.

이러한 것과는 반대로 현대예술의 흐름은 변칙적이고 변형적인 광범위한 분야에서 거론되고 있다. 특히 현대도예는 이미 오래전에 공예의 분야에서 탈피하여 디자인, 설치미술, 조각, 회화분야에도 자유롭게 활동하고 있으며 재료나 기법으로부터의 해방은 물론 다양한 미술로 발전해왔다.

최근에 와서는 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도예가들에 의해 라꾸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고 도자를 전공하는 대학생이나 젊은 도예가들의 관심을 끌고 있으며 조금씩 시도되고 있다. 오래전부터 원광대학교 도예과에서는 라꾸소성을 할 수 있는 가마를 제작해서 좋은 본보기가 되었으며 앞으로의 라꾸발전에 많은 기대가 된다.

III. 결론

한국인에 의해 최초로 일본에서 시도된 도자기법이 오랜 시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빛을 보지 못하고 있다.

특히 라꾸는 그 과정이 흥미롭고 효과도 빨리 볼 수 있기 때문에 도예인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비용, 설비도 적게 들어 손쉽게 작업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진정으로 우리가 한국도예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어떠한 도예기법이라도 주관적인 편견없이 수용할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도예발전을 돌이켜보면 라꾸는 물론, 전통이나 현대도자가 모두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물론 많은 투자와 정열을 쏟았음에도 불구하고 양적으로만 커졌고 질적으로는 많은 발전이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을 증명해 주고 있는 것은 우리 옛 도자기에 대한 국제적인 외국인의 깊은 관심이다. 세계유명도예잡지에서도 고려청자, 분청자, 백자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고 현재의 한국도자에는 아무런 언급이 없다. 라꾸에 관해서는 일본만이 관련된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정체된 우리도자가 변화되려면 편견없이 타 예술과의 협력은 물론 좀 더 적극적으로 그들의 움직임에 동화되고 능동적이어야 될 것이다. 특히, 유럽의 도자기는 현재 고도로 발달되었고 지금 유럽인들의 관심은 동양적인 방향으로 향하고 있다. 그 예로는 세계적인 자기회사 Rosenthal이 연꽃문양을 커피,차셋트에 응용하여 인기를 얻고 있으며(Suomi,Seerose and Langes Leben-도장문양), Arzberg자기회사에서는 Yin Yang, 덴마크의 DKP(Den Kongelige Porcelains Fabrik)자기회사의 Gemma(도장문양이 삽입된 자기셋트)등이 그 대표적인 것들이다.

우리의 도자문화 속에는 다른나라 사람들이
소유하지 않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외국도자를 선호하기보다는 도자에 대한 깊은 관심은 물론 지식을 길러 우리의 강한점을 현 시대에 맞게 발전시키는 일이 세계화에 이바지하는 길이다.

유럽의 예에서 볼수있듯이 16년 동안 유럽에서는 일본에서 전해온 라꾸를 체계적으로 발전시켜 지금은 국제라꾸공모전(1990 Raku modern, Spital speicher, 독일), 소금유, 고화도 소다라꾸를 포함한 국제염 도예전(Salz Glasur, Hoehrgrenz-Hausen 그리고 Salz brand, Handwerkskammer Koblanz, 독일)을 매년마다 개최하고 있고 라꾸특별전을 자주 볼 수 있다.

우리가 라꾸나 도예에 소홀하는동안 유럽은 많은 관심을 가지고 그들의 노력을 투자했다. 무엇보다도 먼저 우리는 우리의 것을 확실히 알고 완전히 소화시킨후 꾸준히 연구

하고 발전시키는 일이 시급하다고 볼수있다.
또한 양적으로만 비대해진 우리나라의 도자교육에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외국의 현대도예를 수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전에 단단한 기초를 닦고 그들의 철학적 배경등 모든 것을 확실하게 검토, 분석한 후 우리에게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절실히 필요하다.

참고문헌

(1) 정동훈, 가마짓기와 번조기법, 미진사, 1992
(2) 야나기무네요시, 쿠마쿠라이사오 엮음, 김순희 옮김, 다도와 일본의 미, 소화, 1995
(3) 유종열, 공예가의 길, 미진사, 1992
(4)Bernard Leach, Das Toerpferbuch, Hoerne-mann, Bonn 1980
(5) Tim Andrews, Raku, Black/Chilton, London, 1994
(6) 정동훈, 월간공예, 1989/8
(7) C. Tyler / R.Hirsch, Modernes Raku, Hoerne mann, 1979
(8) 유종열 지음, 베르나드리치 엮음, 이대일 옮김, 공예가의 길, 미진사, 1992
(9)Neue Keramik, Verlag Neue Keramik Gmbh, 1995, 12
(10) 유미자, 월간도예, 1998, 8